

융합시대의 대학생 성문화 연구 (사랑의 유형이 대학생의 캐주얼 섹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영기*, 박미숙**
충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전과학기술대학교**

The Research of College Students' Sexual Culture in Convergence Ages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types of love to casual sex)

Young-Gi Kim*, Mi-Sook Park**

Dept. of Youth Education & Leadership Advising, ChongShin University*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섹스(Casual Sex)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성문화를 이해하고 성상담과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전지역 86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IBM/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캐주얼 섹스의 행동과 사랑의 유형 중 열정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책임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에 부정 영향을 미치고, 열정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달리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성교제 중에 캐주얼 섹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성교제가 활발한 대학생의 성교육이나 성상담시 사랑의 유형의 연구를 활용해서 준비되고 책임있는 성행동을 논의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캐주얼 섹스(casual sex)의 성행동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존재하지만, 캐주얼 섹스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캐주얼 섹스(casual sex)는 융합시대 젊은이의 성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인에 관한 후속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성상담과 성교육의 기초 자료와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캐주얼 섹스, 사랑의 유형, 대학생, 성행동, 성문화, 융합

Abstract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find the effects of casual sex for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xual culture of college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counsel the sexual education to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868 college stude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SPSS 20.0 program. As a result, the passion of college student affected the casual sex very positively. As the rate of responsibility increases, it affects negatively attitude and behavior of casual sex. To go further, the rates of passion influences positively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casual sex. For this kind of results, as the casual sex of college student in South Korea is behaved in the dating relationship different to America and the dating is very common in South Korea, it is also showing the criticalness and neediness of the sexual educations about the responsibility of sexual behaviors. Among the college students, the casual sex and casual relationships are already behaved through them. However, the researches of the casual sex is difficult to be found in South Korea. In now days, the casual sex is representing the sexuality of young adults in this united ages. Therefore, the following researches will be well appli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s for sexual counsels and sexual educations.

Key Words : Casual Sex, Love Triangle, College Student, Sexual Behavior, Sexual Culture, Convergence.

Received 15 February 2016, Revised 28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Mi-Sook Park
(DaeJeon Institut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also386@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인간의 성은 크게 생물학적 성(sex),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젠더(gender), 총체적인 개념인 섹슈얼리티(sexuality)로 구분할 수 있다[1]. 생물학적 성과 더불어 인간의 심리와 사회문화적 구조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파악하는 사회적 성,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2]. 현재는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와 남녀 성차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이 청소년 후기에 있는 대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디지털과 인터넷의 영향으로 다양성이 생기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융합시대에 적응하고 있다[3,4,5]. 융합시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성이다. 성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다양한 매체 등과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생발달주기에서 청소년후기인 대학생 시기는 성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성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서구사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러 자본주의 문명과 함께 제1의 성해방과 혁명기를 맞았고,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제2의 성혁명기를 맞았다[6]. 2007년 사회학자 물리 머너헌 랭과 바버라 리스먼은 처음으로 성에도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7].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행동과 성문화도 인터넷의 발달로 서구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융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습득한 성지식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다양한 매체를 접함으로써 왜곡된 성지식을 가질 수 있는 비율이 높으며, 이에 따른 원하지 않는 임신, 인공임신중절, 성병 등의 문제들로 심리적 혼란감을 경험하기도 한다[2]. 이러한 대학생의 왜곡된 성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성행동의 동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문화적 현상들과 개인의 행동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4,5,8]. 대학생의 성행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성교의 실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성행동에 대한 인과관계의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9], 문화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사회 문화적인 성을 더욱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한다[10,11]. 미국사회에서는 미

국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성문화인 캐주얼 섹스(casual sex)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 중인 반면에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융합시대에 맞는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사랑이 전제 되어야 하는 관점에서의 사랑의 유형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성문화의 대표적인 현상인 캐주얼 섹스(casual sex)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성상담과 성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사랑의 유형

사랑의 유형 이론(types of love triangle)은 다차원적인 구조로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사랑의 현상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이다[12]. 사랑의 유형은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책임감(commitment)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들은 각각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친밀감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느끼는 가깝고 서로 연관이 있으며 서로 맺어져 있다고 느끼는 상태이다. 열정은 신체적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로맨틱한 감정을 일어나게 해 성적 결합을 이루게 만드는 등의 욕망을 말한다. 이중 친밀감은 정서적 속성, 열정은 동기적 속성, 책임은 인지적 속성으로 정의된다. 남성인 경우 열정이 성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에 반해 친밀감은 여성의 성행동의 동기가 된다[13]. 이 사랑 유형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사랑의 세 가지 측면을 가시화 할 수 있고, 유형의 크기로 사랑의 양을, 유형의 모양 사랑의 균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의 감정과 행동을 동시에 설명하며 사랑의 현상들을 구조화·가시화 시켜줄 수 있고[14], 성별에 따라 성행동의 동기를 예측할 수도 있다.

2.2 캐주얼 섹스

주로 의복의 차림새에 사용되어왔던 캐주얼(casual)란 용어는 격식에 메이지 않아 자유롭고 가볍다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의복뿐 아니라 성행동에도 사용되는 캐주얼(casual)의 의미는 성행동의 동기에 대해

자유롭고, 성행동의 결과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15].

캐주얼 섹스(casual sex)는 이익을 위해 만나는 친구, 후크업(hook up), 더 전통적인 원나잇 스탠드(one night stand)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단어이다. 캐주얼 섹스(casual sex)는 미국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평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원나잇 스탠드(one night stand)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며, 비속어인 후크업(hook up)과 함께 사용한다. 미국에서의 캐주얼 섹스(casual sex)는 갈수록 점점 흔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의 표준처럼 일반화되어 발전하고 있다[16].

캐주얼 섹스(casual sex)는 아무 책임 없이 자유롭게 단기간에 성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준비 없이', '즉흥적인'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캐주얼 섹스(casual sex)는 아무런 준비와 책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키스와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행동으로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7].

현재 미국의 경우 성적으로 활동하는 십대들 가운데 38%는 캐주얼 섹스(casual sex) 경험이 있으며 캐주얼 섹스(casual sex) 활동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하는 개인에게 심지어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성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의 67%가 캐주얼 섹스(casual sex) 경험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캐주얼 섹스(casual sex)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현대 젊은이들 가운데 더욱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18] 이런 미국 젊은이들의 성문화는 현재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마트 시대로 인해 앞으로도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3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문화

2014년 중앙일보[19]에 보도된 대학생의 성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1,254명 중 82.9%가 자신의 삶에서 성생활은 중요하다고 답했고, 성관계 경험율은 남성은 59.9%, 여성은 30.9%로 평균 45.6%이다. 결혼 전 허용할 수 있는 성적행위에서 성관계(sex)는 남성은 69.2%, 여성은 43%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사랑없는 성관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56.1%, 여성은 29.6%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원나잇 스탠드(one night stand) 경험은 163명(13%)이며, 3명 이상의 파트너가 45.3%, 성매매 경험은 23(1.8%)명으로 3회 이상이 42.3%

로 나타났다.

시사저널[20] 보도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8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랑없는 성관계와 원나잇 스탠드(one night stand)는 바로 캐주얼 섹스(casual sex)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흔한 캐주얼 섹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는 것이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1년 통계[21]를 근거로 대학생의 낙태율(15-44세 가임기 여성 1천명 기준)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3.8건에서 2010년에는 8.8건으로 상승했다. 대학생의 임신이 증가하는 큰 이유는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인 혼전 성관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성개방화 물결과 더불어 정보매체들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대학생의 성문화와 성행동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한 성지식과 성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건강하지 못한 성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7].

3. 연구방법

3.1 조사 대상 및 방법

대전광역시에 있는 2개의 4년제 대학교와 2개의 전문대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양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기존 문헌을 통해 빈안 및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확률적 표본추출에서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866매의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IBM/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3.2 조사도구

사랑의 삼각형척도는 스텐버그(Sternberg, 1997)가 제작한 척도를 권순달(2006)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주얼 섹스 행동척도는 심슨과 갱게스테드(Simpson & Gangestad, 1991)가 개발했고, 캐주얼 섹스 태도척도는 헨드릭, 헨드릭과 리치(Hendrick, Hendrick & Reich, 2006)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4. 결과

4.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Table 1> 과 같이 살펴보면, 총 연구대상자 866명 중 남학생이 456명(52.7%)이며, 여학생은 410명(47.3%)이었고, 인문계열이 348명(40.2%)이며 자연계열은 518명(59.8%)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구분에서는 전문대학생이 386명(44.6%), 4년제 대학생이 480명(55.4%)이었다.

종교의 경우 종교를 가진 대학생은 390명(45.2%)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기독교 240명(27.8%), 기타 종교는 150명(17.4%)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생은 472명(54.8%)이었다.

성상담 유무의 경우 성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44명(5.1%)이었고, 성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820명(94.9%)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	Item	N(P)
gender	Male	456(52.7)
	Female	410(47.3)
	Total	866(100.0)
line	Humanities	348(40.2)
	Nature series	518(59.8)
	Total	866(100.0)
University	College	386(44.6)
	University	480(55.4)
	total	866(100.0)
Grade	1grade	366(42.5)
	2grade	318(36.9)
	3grade	124(14.4)
	4grade	54(6.3)
	Total	866(100.0)
Religious affiliation	Christian	240(27.8)
	Catholic	68(7.9)
	Buddhism	62(7.2)
	Etc	20(2.3)
	none	472(54.8)
Sexuality presence	have	44(5.1)
	none	820(94.9)
	Total	866(100.0)

4.2 사랑의 유형과 캐주얼 섹스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사랑의 유형과 캐주얼 섹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2> 와 같다.

대학생의 사랑의 유형 중 친밀감과 책임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밀감과 책임은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763, p<.001$).

친밀감과 열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밀감과 책임은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23, p<.001$).

친밀감과 성태도, 친밀감과 성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열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책임과 열정이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813, p<.001$).

책임과 성태도, 책임과 성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태도와 성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태도와 성행동이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834, p<.001$).

<Table 2> The correlation of love type and casual

Division	Intimacy	Commitment	Passion	Sexual Attitude
Commitment	.763***	1		
Passion	.623***	.813***	1	
Sexual Attitude	.030 [†]	.064	.190***	1
Sexual Behavior	.085 [†]	.091**	.221***	.834***

[†]p<.05, **p<.01, ***p<.001

4.3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 섹스에 미치는 영향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 섹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Table 3> The effects of love type to casual sex

Division	B	β	t	R ²	adj R ²	F
(Contants)	1.663		13.193***	.017	.016	14.717***
Love type	0.140	0.129	3.836***			

[†]p<.05, **p<.01, ***p<.001

<Table 3> 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F-통계량은 14.717으로 유의수준 1%하에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인 R²이 .017으로써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 섹스에 약 1.7%정도 설명할 수 있다.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사랑의 유형이 .140로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함을 볼 수 있으며, 상대적 중요도로 볼 수 있는 표준화 회귀 계수를 보면 사랑의 유형이 .129로 나타났다. 즉, 사랑의 유형 수치가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4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 섹스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랑의 유형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Table 4> 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F-통계량은 22.431로 유의수준 1%하에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인 R²이 0.72로써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 섹스의 성행동에 약 7.2%정도 설명할 수 있다.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친밀감이 .0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은 -.276으로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함을 볼 수 있으며, 열정은 .455로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함을 볼 수 있다. 상대적 중요도로 볼 수 있는 표준화 회귀 계수를 보면 책임이 -.287로 책임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의 성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열정은 .433으로 열정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의 성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The effects of love type to sexual behavior of casual sex

Division	B	β	t	R ²	adj R ²	F
(Contants)	1.449		10.858***	0.072	0.069	22.431***
Intimacy	0.037	0.035	0.681			
Commitment	-0.276	-0.287	-4.207***			
Passion	0.455	0.433	7.681***			

*p< .05, **p<.01, ***p<.001

4.5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 섹스의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 섹스의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Table 5> 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F-통계량은 18.673으로 유의수준 1%하에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인 R²이 0.61로써 사랑의 유형이 캐주얼 섹스의 성태도에 약 6.1%정도 설명할 수 있다.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친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은 -.224로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함을 볼 수 있으며, 열정은 .431로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함을 볼 수 있다. 상대적 중요도로 볼 수 있는 표준화 회귀 계수를 보면 책임이 -.231로 책임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의 성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열정은 .407로 열정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의 성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s of love type to attitude of casual sex

Division	B	β	t	R ²	adj R ²	F
(Contants)	1.835		13.539***	0.061	0.058	18.673***
Intimacy	1.051	-0.047	-0.929			
Commitment	-0.224	-0.231	-3.364***			
Passion	0.431	0.407	7.178***			

*p< .05, **p<.01, ***p<.001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첫째, 대학생의 열정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의 태도와 행동이 같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는 성행동의 동기적 속성인 열정은 신체적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로맨틱한 감정을 일어나게 해 성적 결함을 이루게 만드는 욕망[12]이라고 표현되어진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국외연구[22]의 경우 욕망 즉 성욕은 최소한 약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부정적인 약속과 관련이 있다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호르몬, 생리학적 각성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어 단순히 행동으로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에 캐주얼 섹스와 열정 간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생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에 대한 행동이 같이 높아졌다. 친밀감은 정서적 속성으로 특히 여학생의 경우 파트너와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 감정적 몰입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성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13]. 또한 남성의 경우도 높은 감정적 친밀감이 더 많은 성적 욕구와 성적인 충족을 가져온다는 국외의 연구결과[23]와 비교하여 이성교제가 빈번한 대학생의 친밀감과 성행동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랑의 유형인 책임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열정이 높을수록 캐주얼 섹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캐주얼 섹스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만남이다.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들은 파트너와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캐주얼 섹스를 경험할 수 있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짧은 만남으로도 캐주얼 섹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의 유형과 책임간의 관계를 인지해야 한다.

5.2 결론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사랑의 유형 중에 책임은 캐주얼 섹스를 감소시키며, 친밀감과 열정은 캐주얼 섹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세 요인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할 때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생의 건전한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5.3 제언

첫째, 성행동의 동기적 속성인 열정은 신체적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로맨틱한 감정을 일어나게 해 성적 결합을 이루게 만드는 욕망으로 대학생의 성상담이나 성교육시 열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여학생의 경우 파트너와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 감정적 몰입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성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성상담 및 성교육시 다뤄져야 한다.

셋째, 대학생의 성교육과 성상담시 동기적 속성인 열정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지적 속성인 책임을 강조한 성태도를 갖게 한다면 원치 않는 캐주얼 섹스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Geum-Sook Oh, "The Sexual Experiences in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p.5, ChungAng University, 2004.
 [2] H. G.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Maturity Variable and Sexual Attitud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0, No. 4, pp. 403-405, 2003.
 [3] H. C. Choi, A "Conceptual analysis of yunghab",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Vol. 37, No. 2, pp.11-30, 2015.
 [4] S. Y. Park, K. Y.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55-261, 2015.
 [5] S. U. Yoon, Y. S. Kwon,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91-98, 2015.
 [6] Y. J. Lee, "Capitalism and Sexuality", The Women's Studies, Vol. 31, pp.85-110, 1991.
 [7] NewYork Times:<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13210.html>
 [8] Hee-Young Lee, "Comparative Analysi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Adolescence", Ph.D. dissertation, p.7,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7.
 [9] Young-Gi Kim,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Ph.D. dissertation, p.2, Myongji University, 2011.
 [10] K. S. Lee, J. S. An, "Constructing Governance to Implement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5, pp.23-30, 2013.
 [11] J. H. Joo, h. I. Kim, "Exploration of relationship among Korean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after exposure: focused on PLS path modeling analysi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6. pp.11-21, 2013.
 [12] R. J. Sternberg, "The new psychology of love" Seoul: 21C Books Press, 2010.
 [13] K. W. Kim, K. H. Kang, G. H. Jeong, "Self-Efficacy

-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6.
No. 1, pp.51 - 59, 2012.
- [14] J. S. Kim, “Meaning of lov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 [15] Mi-Sook Park,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sual Sex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istress”, Ph.D. dissertation, pp.139-143,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2015.
- [16] M. Bersamin, M. B. L. Zamboanga, S. J. Schwartz, M. B. Donnellan, M. Hudson, R. S. Weisskirch, S. Robert. Weisskirch, S. Y Kim, V. B. Agocha, S. K. Whitbourne, and S. J. Caraway, “Risky Business: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Casual Sex and Mental Health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Sex Research, Vol. 51, No. 1, pp.43 - 51, 2014.
- [17] A. Adams, and W. Holt, “The Effects of Gender Sociosexual Orientation on Perceptions of Casual Sex”, Hanover College, pp.3-4, 2012.
- [18] H. A. Lyons, “Young Adult Casual Sexual Behavior: Life-Course-Specific Motivations and Consequences”,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57, No. 1, pp.79 - 101, 2014.
- [19] joongang news: <http://news.joins.com/article/14737598>.2014.05.21
- [20] SisaJournal: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76>.2011.12.06
- [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03048
- [22] Gonzaga, G. C., Turner, R. A., Keltner. D., Campos., Belinda. “Romantic Love and Sexual Desire in Close Relationships”, Romantic Love and Sexual Desire in Close Relationships, Vol. 6, No. 2, pp.163 - 179, 2006.
- [23] A. Stulhofer, L. Ferreira, I. Landripet, “Emotional intimacy, sexual desire, and sexual satisfaction among partnered heterosexual men”,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Vol. 29, No 2. pp.229-244. 2014.

김 영 기(Kim, Young Gi)



- 2003년 2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교육학박사)
- 2014년 11월 ~ 현재 : 충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원
- 관심분야 : 통계, 청소년지도
- E-Mail : kyg@chongshin.ac

박 미 숙(Park, Mi Sook)



- 1989년 2월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사)
- 2004년 8월 : 건양대학교 상담교육(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교육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대학생의 성, 보건교육
- E-Mail : also386@hanmail.net